

三消理論의 形成過程에 관한 文獻的 考察

顧善立·尹暢烈*

I. 緒論

消渴病이란 多飲, 多食, 多尿, 形體消瘦를 主症으로 하는 疾患을 指稱하는 것으로¹⁾²⁾ 後世의 醫家들은 多飲, 多食, 多尿 等 三個의 主證을 根據로 하여 上·中·下 三消로 分類하였으며 統稱하여 三消라 했다.¹⁾²⁾ 卽 多飲은 病變이 上焦에 있기 때문에 上消라 稱하고, 上消는 肺에 屬한다. 多食은 病變이 中焦에 있기 때문에 中消라 稱하고, 中消는 胃에 屬한다. 多尿는 病變이 下焦에 있는 것으로 下消라 稱하며, 下消는 腎에 屬하게 된다.¹⁾²⁾ 그러나 三消의 分類는 결코 絶對化할 수 없는 것으로, 三多症狀은 疾病의 發生, 發展過程 中에서 同時에 存在해야만이 獨立的인 消渴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三多症狀을 分割하게 되면 病과 症의 區分을 완전히 混淆케 된다.¹⁾

한편, 消渴에 對한 最初의 記錄은 春秋時代에 著述되었다고 믿어지는 黃帝內經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후 張仲景, 王叔和, 巢元方, 孫思邈 등에 의하여 消渴의 原因부터 症狀, 診斷, 並 發症, 治方에 이르기까지 定立되었고, 그후로부터 19世紀 前까지는 前代理論의 妥當性 내지는 理論과 治方의 發展을 가져왔다.⁴⁾

이에 本 著者는 黃帝內經을 爲始한 各 時代의 重要書籍을 通하여 消渴理論이 定立되기까지 그 形成過程을 살펴보고자 한다.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II. 本 論

(一) 黃帝內經

黃帝內經 中에는 消瘴, 消中, 熱中, 消渴, 風消, 肺消, 膈消, 食飢 등 消渴病과 有關한 名稱들이 散在해 있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消 瘴

消瘴이라는 名稱은 《素問·通評虛實論》《靈樞·五變論》《靈樞·本藏論》《靈樞·邪氣臟腑病形篇》《靈樞·師傳篇》 등에 出現하며, 瘴이라는 名稱은 《素問·學痛論》과 《素問·脈要精微論》에 出現한다.

王等⁵¹⁾⁷⁾에 의하면 “消瘴이란 消渴을 말하는 것”으로서 “消는 消耗, 瘴은 內熱을 뜻한다”⁵⁾⁷⁾ 하였으며, 특히 張⁸⁾은 “消瘴者, 三消之總稱, 謂內熱, 消中, 肌膚消瘦也”라 했고, 張⁹⁾은 “消瘴者衆消之總名, 消中者善飢之通稱, 消渴者善飲之同謂”라 했다. 그러나 武⁹⁾는 見解를 달리하여 “消瘴은 糖尿病으로서의 消渴이 아니라, 眼球突出性 甲狀腺機能亢進症을 말한다” 하였다.

한편, 消瘴의 病因病機에 對하여 《素問·通評虛實論》에 이르기를 “무릇 消瘴, 仆擊, 偏枯, 痿厥, 氣急喘滿上逆等 病症을 治療함에 있어서 (1) 肥胖富貴한 患者는 高粱厚味를 多食하여 생긴 것이며, (2) 胸膈上下閉塞不通한 病症은 갑작스럽게 精神의 刺激을 받아 생긴 것이고, (3) 突然히 厥逆, 耳聾, 竅門閉塞 등이 나타나는 것은 內在해 있는 氣血이 離亂相搏하였기 때문이며, (4) 어떤 病은 內在해 있는 致病因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外部로부터 邪氣가 侵犯하여 그것이 잠복하였다가 熱로 化하여 燔灼消瘦하고 留著不去하여 生하고, (5) 下肢가 절록거리며 寒冷한 病症은 風濕으로 因한 것”⁵⁾이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消瘴은 여러 原因에 의해 發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靈樞·五變論》에 이르기를 “五臟皆柔弱者, 善病消瘴”이라 했고, 《靈樞·本藏論》에 이르기를 “心脆則善病消瘴熱中……腎脆則善病消瘴易傷”이라 하였으며,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心脈微小爲消瘴, 腎脈微小爲消瘴”이라 하여 五臟이 柔弱하여 本病이 잘 났을 論하고 있고, 《靈樞·本藏篇》에 “肩背薄者肺脆, 脇骨弱者肝脆, 唇大而不堅者脾脆, 髑髁弱小以薄者心脆, 耳薄而不堅者腎脆”라 하여 五臟脆弱의 外候를 記述하고 있다.

消瘴의 病理過程에 對하여 《靈樞·五變論》에 이르기를 “夫柔弱者, 必有剛強, 剛強多怒, 柔者易傷也……其心剛, 剛則多怒, 怒則氣上逆, 胸中蓄血, 血氣逆留, 髓皮充肌, 血脈不行, 轉而爲熱,

熱則消肌膚，故爲消瘴”이라 하여 鬱熱로 인해 消瘴이 된다는 것을 論하고 있다.

消瘴의 症狀에 있어서 《靈樞·師傳篇》에 이르기를 “夫中熱，消瘴則便寒……胃中熱則消穀，令人懸心善噦，臍以上皮熱，腸中熱則出黃如糜，臍以下皮寒”이라 하였고，《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瘴成爲消中”이라 했으며，《素問·舉痛論》에서는 “熱氣留於小腸，腸中痛，瘴熱焦渴，則堅乾不得出，故痛而閉不通矣”라 했고，《靈樞·五變論》에서는 “此人薄皮膚，而目堅固以深者，長衝直揚，其心剛，剛則多怒……熱則消肌膚，故爲消瘴”이라 하였다. 따라서 消瘴의 症狀은 胃中熱症인 消穀善飢症이나 腸中熱證인 出黃如糜症이 있으며，消中症이 있고 內熱과 燥渴症이 있으며，皮膚가 薄弱하고 目이 堅固以深，長衝直揚한 症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目堅固以深 중 深에 對한 解釋에 있어서 武⁹⁾는 《儀禮·觀禮》《左傳文十二年》等 文獻과 注解를 土臺로 하여 深은 當時에 ‘高出’ ‘突出’의 뜻으로 쓰였으며，따라서 消瘴은 眼球突出性 甲狀腺機能亢進證을 말한다” 하였으나 深字의 解釋上의 차이를 갖고 문제를 論한다는 것은 多少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張子和의 말과 같이 消瘴을 衆消의 總名으로 理解하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思料된다.

(2) 熱 中

熱中이라는 名稱은 《靈樞·本藏篇》《素問·風論》《素問·脈解篇》《靈樞·五癰津液別篇》《靈樞·五邪篇》《靈樞·終始篇》《素問·三部九候論》《靈樞·禁服篇》《靈樞·師傳篇》《素問·腹中論》《素問·平人氣象論》《靈樞·雜病論》《素問·脈要精微論》 등에 出現한다.

王¹⁰⁾에 의하면 “熱中은 多飲數洩한 症을 말한다” 하였고，王¹¹⁾은 “病症名으로서 飲食·勞倦 등에 의해 脾胃가 損傷을 받아 나타나는 陰虛火旺의 病證이며，中消로 解釋하기도 한다” 하였으며 郭¹⁰⁾은 “內熱”이라 하였다.

한편，中醫大辭典¹²⁾에서는 熱中은 다섯 가지 뜻이 있다 하여 ① 胃火가 熾盛하여 善飢能食하는 病症 ② 多飲多尿의 病症 ③ 目黃을 主證으로 하는 病症 ④ 飲食勞倦에 의해 脾胃가 損傷을 받아 氣虛火旺한 病症 ⑤ 消瘴을 指稱한다 하였으나，內經中 熱中에 관한 文獻을 놓고 살펴 볼 때 세부분으로 분류된다.

① 《靈樞·五癰津液別篇》에서는 “中熱則胃中消穀”라 했고，《靈樞·五邪篇》에서는 “邪在脾胃，則病肌肉痛，陽氣有餘，陰氣不足則熱中善飢”라 했으며，《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陰不足陽有餘爲熱中”이라 했으며，《靈樞·師傳篇》에서는 “夫中熱消瘴則便寒……胃中熱則消穀，令人懸心善飢，臍以上皮熱，腸中熱則出黃如糜，臍以下皮寒”이라 하였다. 따라서 本病症은 胃中熱症인 消穀善飢症과 腸中熱症인 出黃如糜症을 主症으로 하며，陰氣가 不足하고 陽氣가 有餘하여 發生한다.

② 《素問·風論》에 이르기를 “風者善行而數變，腠理開則洒然寒，閉則熱而悶，其寒也則衰食飲，其熱也則消肌肉，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眦，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

이라 하였는데 王等⁵⁾⁶⁾에 의하면 “이는 風病의 一種으로 風邪가 陽明胃經에 侵犯하여 熱化한 所致이며 目黃을 主證으로 한다” 하였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熱中症은 風邪로부터 病理變化 過程을 거쳐 發生된 것으로 肌肉消瘦, 目黃等 風邪의 特性에 의해 여러 兼證이 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③ 이밖에 《素問·脈解篇》에서는 “厥陰……所謂甚則噤乾, 熱中者, 陰陽相薄而熱, 故噤乾也”라 하였고, 《靈樞·終始篇》에서는 “厥陰終者, 中熱噤乾, 喜溺, 心煩, 甚則舌卷, 卵上縮而終矣”라 하여 厥陰經과 有關한 熱中症에 對하여 論하고 있는데 王⁵⁾에 의하면 “이는 陽氣와 陰邪가 서로 相爭하여 內熱을 일으켜 本病이 發生된다” 하여 前述한 熱中證의 發生機轉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傷寒論·厥陰病脈證並治》에 보면 “厥陰之爲病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饑而不欲食, 食即吐蚘, 下之不肯止”라 하였는데 上記 厥陰經 熱中證과 相關이 있지 않나 생각되며,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3) 消 中

消中이라는 名稱은 《素問·脈要精微論》《素問·腹中論》에 出現한다.

《醫學綱目》⁵⁾에 의하면 “中消者, 經所謂消中”이라 하였으며, 王等⁵⁾¹¹⁾은 “熱邪로 因해 消穀善飢하는 消中을 일으킨다” 하였고, 王¹⁰⁾은 “多食數溲謂之消中”이라 했다.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痺成爲消中”이라 하였고, 《素問·腹中論》에서는 “帝曰：夫子數言熱中, 消中, 不可服高粱芳草石藥, 石藥發癩, 芳草發狂, 夫熱中, 消中, 皆富貴人也, 今禁高粱, 是不合其心, 禁芳草石藥, 是病不愈, 願聞其說. 岐伯曰：夫芳草之氣美, 石藥之氣悍, 二者其氣急疾堅勁, 故非緩心和人, 不可以服此二者. 帝曰：不可以服此二者, 何以然? 岐伯曰：夫熱氣慄悍藥氣亦然, 二者相遇恐內傷脾, 脾者土也, 而惡木, 服此藥者, 至甲乙日更論”이라 하였다. 즉, 消中은 消痺의 主症狀임을 알 수 있으며, 病熱이 脾土를 損傷시켜 熱中, 消中이 發生됨을 알 수 있다.

(4) 消 渴

消渴이라는 名稱은 《素問·奇病論》에 出現하는데, 王等⁵⁾¹²⁾은 “消渴은 病名으로 臨床上 多飲, 多食, 多尿 等 症狀이 나타난다” 하였다.

《素問·奇病論》에 보면 “帝曰：有病口甘者, 病名爲何? 何以得之? 岐伯曰：此五氣之溢也, 名曰脾瘴. 夫五味入口藏於胃, 脾爲之行其精氣, 津液在脾, 故令人口甘也, 此肥美之所發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治之以蘭, 除陳氣也”라 하였다.

瘴은 中醫大辭典⁶⁾에 의하면 세가지 뜻이 있는데, “① 熱邪, 熱氣盛의 뜻과 ② 疸과 通用되며

③ 勞病을 말한다” 하였다. 脾瘕에 對해 王⁵⁾은 “瘕은 熱也라, 脾胃에 熱이 積聚되어, 위로 입에 上騰하므로 口甘하게 되는데 土氣가 溢한 所致”라 하였다.

한편 《素問·刺熱論》에 보면 脾熱病에 對해 이르기를 “脾熱病者, 鼻先赤, 先頭重頰痛, 煩心顏青, 欲嘔身熱, 熱爭則腰痛不可用俯仰, 腹滿泄, 兩頰痛”이라 하였는데, 이를 비교하여 볼 때 脾瘕와 脾熱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消의 定義에 對해 《素問·陰陽別論》에 “二陽結, 謂之消”라 하였으며, 이에 對해 喻¹³⁾는 “二陽者, 陽明也, 手陽明大腸主津, 病消則目黃口乾, 是津不足也, 足陽明胃主血, 病熱則消殺善飢, 血中伏火, 乃血不足也. 結者津血不足結而不行, 皆燥之爲病也”라 하였으며, 張¹⁴⁾은 “蓋消者, 消燦也, 亦消耗也, 凡陰陽血氣之屬, 日見消敗者, 皆謂之消”라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消渴, 消中은 消耗性的 證候群을 말하며, 脾瘕이나 瘕病에 의해 誘發되는 것임을 推測할 수 있다.

(5) 膈 消

膈消라는 名稱은 《素問·氣厥論》에 出現하는데 劉¹⁵⁾에 의하면 “이는 上消를 말하는 것으로 多飲水少食하며, 大便은 如常하며, 或 小便은 清利하다” 하였으며, 李¹⁶⁾는 “高消라고도 하며 舌上赤裂하며 大渴引飲이 있는데 白虎加人蔘湯으로 治하라” 하였다.

그러나 內經中에는 膈消의 症狀에 對해 記載한 바 없으며, 다만 그 病理機轉에 對해 “心移熱於肺, 傳爲膈消”⁹⁾라고 했을 뿐이다.

(6) 肺 消

肺消는 《素問·氣厥論》에 出現하는데, 張⁹⁾에 의하면 “心은 陽火로서 陽邪를 먼저 받게 되는데 陽火가 內鬱하면 火鬱이 內傳하게 되고 肺金이 制壓을 받게 되어 火와 寒邪가 모두 肺를 乘하게 된다. 肺가 外로는 寒에 의해 공격을 받으면 陽氣가 施泄케 되고, 內로는 火에 의해 燥하게 되므로 火亢이 極甚하게 되면 水가 乘復케 된다. 따라서 皮膚는 索澤而群著케 되고 小便은 積濕而頻하며 上飲半升하는데 下行十合하여 飲一澠二한다고 하여 죽는다” 하였다. 肺消는 寒邪에 의해 공격을 받아 陽氣가 內部에서 自潰(虧가 아닌가 생각됨)되는 것으로 不可治한다” 하였고, 張⁷⁾은 “心火가 不足하면 肺金을 溫養치 못하고 肺金이 不溫한즉 津液을 行化치 못하므로 飲一澠二하게 되며 肺는 水의 母로서 水가 많이 排泄되면 肺氣가 影響을 받아 索하게 되므로 이를 肺消라고 한다” 하였으며, 尤¹⁰⁾는 肺는 上焦에 있으면서 氣化를 擔當하고 있는데, 肺에 熱이 있으면 肅降作用을 하지 못하여 水가 下降치 못하며, 肺가 寒하면 氣化를 하지 못하여 水가 身體의 各處에 分布되지 못하므로 因해 飲水量과는 相關없이 모두 下降케 되고, 몸의 모든 津液이 下降하여 有降而無升하므로 生氣가 停息케 되고 飲一澠二하여 死不治한다” 하였다.

(二) 傷寒卒病論

本書는 三世紀初, 東漢의 張仲景에 의해 編撰된 것으로서 傷寒과 雜病을 論述한 專著이다. 本書는 晉의 王叔和에 의해 整理되었으며, 後에 傷寒部分과 雜病部分 등 二書로 分類되었고 北宋 때에는 校正醫書局에 의해 各個 校訂되었다.⁶⁾

《傷寒論》中 消渴이라는 名稱은 第七十一條와 第三百二十六條에 出現하며 《金匱要略》中에는 消渴小便利淋病脈證並治篇에 出現하고 前者의 內容이 모두 包含되 있다.

《金匱要略》中 消渴과 有關한 文獻은 9條文에 이르고 있는데, 크게 5部分으로 分類할 수 있다.

①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食即吐蚘, 下之不肯止”라 했는데, 前 述하였듯이 이는 《素問·脈解篇》에 나와 있는 厥陰病 熱中證과 相關이 있지 않나 思料된다.

② 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宜利小便發汗, 五苓散主之(傷寒七十一條), 渴欲飲水, 水入 則吐者, 名曰水逆, 五苓散主之(傷寒第七十四條), 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傷寒第二三三條), 渴欲飲水不止者, 文蛤散主之” 등 文獻을 郭¹⁷⁾은 모두 五苓散證類에 歸屬시 켰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口渴은 胃中津液不足으로 因한 것이 아니며, 津液이 停聚되어 化行 치 못하는 것으로 蓄水證이라고 한다” 하였다.¹⁷⁾

③ 渴欲飲水, 口乾舌燥者, 白虎加人參湯主之(傷寒第一三二條)라고 한 것에 對해 郭¹⁷⁾은 “이 는 表邪는 비록 解하였으나 裡熱이 熾盛하여 津液이 損傷을 받은 것”이라 하였고, 尤¹⁸⁾는 “이 는 肺胃에 熱이 盛하여 傷津한 것으로 所謂上消, 兩消之證을 말한다” 하였다.

④ “趺陽脈浮而數, 浮即爲氣, 數即消穀而大堅, 氣盛則溲數, 數即堅, 堅數相搏即爲消渴”라 했 고, “趺陽脈數, 胃中有熱, 即消穀引食, 大便必堅, 小便即數”라 했는데 尤¹⁸⁾에 의하면 “이는 後 世에 所謂 消穀善餓”라고 하는 中消를 말한다” 하였고, 程¹⁸⁾은 “穀消熱盛하면 水가 膀胱으로 잘 滲入되므로 小便數하고 大便이 硬하며, 胃에 津液이 없어서 消渴病이 된다” 하였다.

⑤ 男子消渴, 小便反多, 以飲一斗, 小便一斗, 腎氣丸主之”라 했는데, 程¹⁸⁾은 이는 攝養을 잘 못하여, 腎水가 衰竭되고, 龍雷之火가 下部에 安居하지 않고 위로 炎上하여 肺金을 刑罰하고, 肺熱葉焦한즉 消渴引飲하고, 飲水가 胃에 入하면 下焦에 火가 이를 化生치 못하므로 膀胱으로 直入케 되어 飲一斗, 尿亦一斗케 된다. 이는 下消에 屬한다” 하였다.

(三) 小品方

AD 4世紀 初頃に 東晉의 陳延之가 撰하였으며, 12卷으로 되어 있다. 本書는 일찌기 佚失되 었으며, 佚文이 《外台秘要》《醫心方》등에 散見되어 있다.⁶⁾

醫心方に記載되어 있는 小品方の 消渴에 관한 文獻을 살펴 보면, 크게 두 가지 原因說로 구분하여 疾病을 論하고 있다.

① 五石散에 의한 경우

原文에 보면 “어렸을 때에 五石諸丸散을 服用하고부터 年歲가 쌓여감에 따라 사람이 虛耗하게 됨에 따라 石熱이 腎中에 結하여 下焦虛熱케 되므로, 消利, 消渴, 渴利, 強中 등 證이 나타난다” 하였으며, 各症狀에 對해 “消利~不渴而小便自利; 消渴~但渴不利也; 渴利~隨飲小便也; 強中~莖長興終不痿, 溺液自出”라 하였고, 治方으로는 “猪腎薺萐湯, 鴨通丸 등으로 腎中の 石勢를 制하라” 하였다.

한편, 《素問·腹中論》에는 “夫芳草之氣美, 石葯之氣悍, 二者其氣急疾堅勁, 故非緩心和人, 不可以服此二者……夫熱氣慄悍, 葯氣亦然, 二者相遇, 恐內傷脾”라 하여 石葯이 脾臟을 損傷시킬 수 있다 하였으며, 《小品方》에서 腎臟을 損傷시킬 수 있다고 한 것과 差異가 있다.

② 熱中에 의한 경우

原文에 보면 “內消란 病은 모두 熱中에 의해 생기며, 小便이 飲水量에 비해 많고 虛極短氣케 된다. 內消란 飲食物이 모두 小便을 통해 消耗되어 빠져나가며 渴症은 없다” 하였으며, 治方으로는 “苟起湯을 使用하라” 하였다.

한편, 內消의 主症狀은 不渴而小便自利인데, 이는 五石散에 의해 誘發된 消利證과 그 症狀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諸病源候論에서는 消利라는 各稱 대신 內消라는 名稱으로 일괄하였으며, 病因을 五石散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¹⁹⁾ 南¹⁹⁾은 “여기에서 말하는 內消는 腎消를 指稱하는 것으로서 後世에서 所謂 말하는 下消를 말한다” 하였다.

(四) 千金要方

千金要方は 備急千金要方이라고도 하여 AD 7世紀 中期 때에 唐의 孫思邈에 의해 編撰되었다. 책중에 收錄한 醫論과 醫方은 內經 以後로부터 唐代初期 以前까지의 醫學的 成就를 比較的 系統的으로 總結, 反映하였다.⁶⁾

千金要方에서는 消渴을 크게 3가지 原因說로 區分하여 論하고 있다.

① 長期間 飲酒에 의한 경우²⁰⁾

原文에 보면 “무릇 長期間 飲酒를 하게 되면 消渴이 아니될 수 없다. 大寒할 때에 바닷물이 얼어붙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凍結되지 않는 것은 酒의 性質이 酷熱하기 때문이다. 飲食物 또한 肺炙하거나 鹽鹹을 加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酒客이 이를 즐겨 찾고, 또한 세 네잔 정도 술을

주고 받은 후에는 自制力을 잃어, 飲噉無度케 되며, 鮚醬, 酸鹹한 것을 마구 먹게 된다. 이와 같이 長期間을 生活하다 보면 酣興不解하여 三焦가 猛熱케 되며, 五臟이 乾燥케 되어 渴症을 유발한다” 하였다.

② 熱中에 의한 경우²⁰⁾

이는 小品方 內消에 관한 文獻을 그대로 收錄하였으며, 그 후에 臨床例를 記載하고 있는데, “正觀十年에 梓州의 刺史 李文博이 오래동안 白石英을 服用하여 오다가 갑자기 房道가 強盛해지고 一箇月餘가 지나니까 漸次 渴症이 생기며 數日이 지난 후에는 小便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며 밤에 백번 정도 보게 되었다. 百方으로 治療를 하였으나 漸次 甚해지고 四體가 羸弱하여 일어서지를 못하며 精神이 恍惚해지고 口舌焦乾하여지다가 죽고 말았다. 이는 稀少한 病이나 아주 무서운 病으로 小便利할 때에는 六脈이 沈細微弱해지고 枸杞湯을 服用하면 即效하나 長愈하지는 못하며, 鉛丹散을 服用하면 輕減시킬 수는 있다. 除熱宣補丸을 服用하라” 하였다.

이와 같이 五石을 服用하여 나타난 疾病을 內消의 臨床例로서 記載한 것은 內消를 石藥에 의해 誘發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③ 五石散이나 房勞에 의한 경우²⁰⁾

原文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은 放恣한 者가 많은데, 盛壯之時에 愼惜해 하지 않을 快情縱慾하고 極意房中하여 漸次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腎氣가 虛竭되어 百病이 滋生케 된다. 또한 어렸을 때에 將次 房事를 하지 못할까 두려워 石散을 多服하여 眞氣를 脫盡케 하고 石氣가 孤立되어 오직 虛耗하게 되어 唇口가 乾焦해지고 精液이 自泄하며 或 小便이 赤黃하고 大便이 乾實하며 或 渴而利하고 或 渴而不利, 或 不渴而利하여 攝取한 飲食이 모두 小便으로 된다. 이는 房室不節로 인한 所致이며 消渴이라 한다. 小便利할 뿐 飲水치 않는 것은 腎實한 것으로 經에 이르기를 “腎實則消, 消者不渴而利”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라 하였다.

以上과 같은 세 가지 原因說 以外에 孫思邈은 消渴病의 세 가지 禁忌事項을 記載하고 있는데 첫째는 飲酒요 둘째는 房勞이며 셋째는 鹹食과 麵을 피하라 했다.

한편 《靈樞·五味論》에 보면 “鹹入於胃, 其氣上走中焦, 注於脈則血氣走之, 血與鹹, 相得則凝, 凝則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 竭則咽絡焦, 故舌本乾而善渴, 血脈者, 中焦之理也, 故鹹入而走血矣”라 하여 鹹食으로 인한 渴症의 發生機轉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原因 때문에 禁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五) 古今錄驗方²¹⁾

50卷으로 되어 있으며, 唐의 甄立言(七世紀⁶⁾)이 撰하였다. 原書는 이미 佚失되었으며, 그 중

에 部文의인 佚文이 《外台秘要》《醫心方》等書에 나타난다.

本書에서는 消渴病을 消渴, 消中, 消腎 等 셋으로 分類하였고, 그 症狀과 用藥法에 對해 記載하고 있다.

- 1) 消渴病~渴而飲水多, 小便數, 無脂, 似麩片甜者
- 2) 消中病~喫食多, 不甚渴, 小便少, 似有油而數者
- 3) 腎消病~渴飲水不能多, 但腿腫, 脚先瘦, 小陰痿弱, 數小便者, 是腎消病也, 特忌房勞.

※ 消渴者 倍黃連, 消中者倍栝藹, 消腎者加芒硝六分.

(六) 近效祠部李郎中消渴方²¹⁾

本書에서는 消渴의 發生機轉, 脚氣와의 差異點과 宜食之物을 論하고 있는데, 특히 脚氣와의 差異點에 對해 論한 文獻은 普濟本事方,²²⁾ 東醫寶鑑²³⁾ 등에 그대로 引用되고 있다.

(1) 消渴의 發生機轉

消渴이란 것은 原來 腎虛로 因해 發動되며, 每번 發할 때마다 小便이 달다.

腰腎이 虛冷하면 上蒸하지 못하므로 穀氣가 모두 下降하여 小便으로 된다. 故로 甘味가 變하지 않고 其色은 清冷하며 肌膚가 枯槁케 되니 이는 乳母의 穀氣가 모두 上洩하여 乳汁이 되는 것과 같이 消渴病은 下洩하여 小便으로 되는 것이니 이는 모두 內部的 精氣가 不實하여 羸瘦케 된 것이다.

또한 肺는 五臟의 華蓋로서 만약 下部에서 暖氣가 蒸하면 肺가 潤澤하게 되며, 만약 下部가 極冷하여 陽氣가 上昇치 못하면 肺乾하여 生熱케 된다.

(2) 宜食之物

五·六日間의 間隔을 두고 餅과 함께 精選된 羊肉과 黃色 鴨蛋으로 鷓鴣를 만들어 服用하면 溫暖케 할 수 있다.

(3) 脚氣와의 差異點

此疾患(消渴病)과 脚氣는 모두 腎虛로 因해 發生하나 脚氣는 二三月에 始發하고, 五六月에 盛하며 七八월에 衰하게 되나 消渴病은 七八월에 始發하여 十一月十二月에 盛하며 二月三月에 衰하게 되니 그 原因은 무엇인가? 脚氣는 癱疾이고 消渴은 宣疾이다. 春夏는 陽氣가 上昇하므로 癱疾이 發하고 宣疾이 愈케 되는 것이다. 秋冬에는 陽氣가 下降하므로 宣疾이 發하고 癱疾이 愈케 되는 것이다.

Ⅲ. 考察 및 總括

以上과 같이 黃帝內經을 爲始하여, 外台秘要에 收錄되어 있는 近效方에 이르기까지 時代別 重要書籍 六種中 消渴에 관한 文獻을 살펴 보았는데, 消渴에 對한 理解가 各者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黃帝內經부터 살펴보면, 《靈樞·五變論》²⁴⁾에 이르기를 “五臟皆柔弱者善病消瘵”이라 했고 《素問·脈要精微論》²⁴⁾에서는 “瘵成爲消中”이라 했으며, 《素問奇病論》²⁴⁾에서는 “帝曰;有病口甘者, 病名何? 何以得之? 岐伯曰;此五氣之溢也, 名曰脾瘵. 夫五味入口藏於胃, 脾爲之行其精氣, 津液在脾, 故令人口甘也. 此肥美之所發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爲消渴”라 했다.

한편 張⁹⁾은 消瘵, 消中, 消渴에 對해 정의를 내리기를 “消瘵者, 衆消之總名, 消中者, 善飢之通稱, 消渴者, 善飲之同謂”라 하였는데, 消中은 消瘵으로부터 發生하며, 消渴은 脾瘵으로부터 轉化된 것이라고 하는 上記 內經의 文獻을 놓고 볼 때 根據가 있다고 思料되며, 또한 脾瘵은 消瘵의 일종이 아닌가 思料된다.

傷寒卒病論에서 論及된 消渴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중 ① 厥陰病 消渴證과 ② 津液停滯로 因한 消渴은 消渴病과 直接的 관련이 없는 것으로 思料되며 渴症을 主症으로 하는 疾病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③ 渴欲飲水, 口乾舌燥를 主症으로 하는 白虎加人參湯證과 ④ 消穀善飢, 大便必堅, 小便數을 主症으로 하는 胃中熱證 ⑤ 飲一溲一을 主症으로 하는 腎氣丸證이 있는데 李東垣¹⁶⁾이 消渴을 鬲消, 中消, 下消 등으로 分類하여 ① 鬲消는 舌上赤裂, 大渴引飲을 主症으로 하며 白虎加人參湯으로 治하고 ② 中消는 善食而瘦, 自汗, 大便硬, 小便數을 主症으로 하며 調胃承氣湯, 三黃丸으로 治하고, ③ 下消는 煩躁引飲, 耳輪焦乾, 小便如膏를 主症으로 하며 六味地黃丸으로 治하라고 한 것은 張仲景의 思想을 많이 받지 않았나 思料된다.

小品方에서는 消渴을 五石散에 의한 경우와 熱中에 의한 경우로 分類하여 論하고 있는데, 魏晉時代에는 服石風潮가 盛行하였으며, 三國時代 魏나라 尙書 何晏이 耽聲好色할 目的으로 服用하면서부터 沒落, 頹廢한 士大夫 階級에게 急速히 流行되었으며²⁵⁾ 따라 五石散에 의한 消渴病이 多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小品方에서는 五石散이 主로 腎臟을 損傷시켜 消利(不渴而小便自利), 消渴(但渴不利), 渴利(隨飲小便也), 強中(莖長終不痿, 溺液自出) 등症을 誘發시킨다고 하였는데, 《素問·腹中論》²⁴⁾에서는 石藥이 脾臟을 損傷시킨다고 하였고 《素問·脈要精微論》²⁴⁾에서는 消瘵病으로부터 消中症이 發生된다고 하였으며 《素問·奇病論》에서는 脾瘵病이 消渴症을 隨伴한다 하여 內經의 思

想과 小品方의 思想이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小品方에서는 “少時服五石諸丸散者，積經年歲人轉虛耗，石熱結於腎中，使人下焦虛熱”라 하여 時間이 長期化되고 人體가 虛耗케 되었을 때 石熱이 腎中에 結聚되어 下焦에서 虛熱이 發生하여 消渴病이 된다 하였는데, 脾臟과 腎臟의 관계에 있어서 腎은 先天之本이 되고, 脾는 後天之本으로서 腎과 脾의 關係는 先天과 後天間의 相互滋生 및 相互促進의 관계²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石藥이 먼저 脾臟을 損傷케 한 然後에 時日이 經過되고 人體가 虛耗케 되었을 때 腎臟이 損傷되는 것이 아닌가 思慮된다.

이 밖에 小品方²⁶⁾에서는 熱中에 의한 內消證을 記載하고 있는데 內消는 小便이 飲水量에 비해 많고 虛極短氣하며 飲食物이 모두 小便을 通해 消耗되고 渴症은 없다 하였다.

黃帝內經에서는 內消라는 名稱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熱中에 對한 文獻이 散在해 있는데, 《靈樞·五癯津液別篇》²⁷⁾ 《靈樞·五邪篇》²⁴⁾ 《靈樞·師傳篇》²⁴⁾ 등에 보면 熱中證은 消穀善飢를 主症으로 하는 病證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內經에서의 熱中과 小品方에서의 熱中에 의한 內消가 類似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巢¹⁹⁾는 內消를 消利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이는 “少時에 石藥을 服用하여 石熱이 腎中에 結한 것으로 內熱에 의한 것”이라 했고, 孫²⁰⁾은 小品方의 原文 뒤에 石藥에 의한 內消의 臨床例를 記載하였으며, 宋²⁸⁾은 “內消는 少時에 石藥을 服用해 오던 者가 房室太甚하여 眞氣가 耗憊되고 石氣가 腎에 結聚되어 腎實케 되고 消水漿하게 되는 故로 不渴而小便利多하며, 五臟을 潤養치 못하여 섭취한 음식이 모두 小便을 通하여 消耗된다. 邪熱이 五臟을 薰鑠하고 外로는 肌肉形體에 이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消中에 配屬시켰다. 陳²⁹⁾은 “內消는 腎消를 指稱하는 것으로 腎에 屬하며 盛壯之時에 謹慎해하지 않고 快情恣慾하여 房中을 極히 좋아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腎氣가 衰弱해진 데다가 丹石을 많이 服用하여 眞氣를 喪失하여 口焦乾, 精溢自洩, 不飲而利等症이 나타난다” 하여 巢之方 以後에는 內消를 主로 石藥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內消가 果然 石藥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는 文獻의 으로 確實히 區分할 수는 없으나, 小品方에 內消는 熱中에 의한 것이라고 明記해 놓은 점과 石藥에 의한 消利證과 그 症狀은 같으나 따로 論及한 點 等으로 미루어 볼 때 兩者가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諸病源候論에서 이를 같이 다루고부터 혼동된 것이 아닌가 思料된다.

千金方에서는 小品方의 學說 以外에 飲酒에 의해 發生한 消渴病을 論하고 있는데 “술은 性質이 熱하여 長服하게 되면 三焦를 猛熱케 하고 五臟을 乾燥케 하여 渴症을 유발한다”²⁰⁾ 하였다. 또한 消渴病의 禁忌事項에 있어서도 ① 飲酒 ② 房勞 ③ 鹹食과 麵을 들고 있다.

古今錄驗方에서는 消渴을 消渴, 消中, 消腎 等으로 分類하여 놓고 그에 따르는 症狀 및 用藥法에 對해 論하고 있다.

近效方에서는 消渴의 發生機轉을 “腰腎이 虛冷하여 上蒸치 못하므로 穀氣가 모두 下降하여 小便으로 된 것이라 하였으며, 王³¹⁾이 “消渴은 上熱下寒에 의한 所致”라고 한 것과 一脈相通한

다고 본다. 한편 金¹²⁾은 水液代謝에 對해 이르기를 “開”라고 하는 것은 輸出·排泄·消耗한다는 뜻이고, “闔”이라고 하는 것은 關閉함으로써 體液을 貯藏한다는 뜻이다. 정상적인 生理狀態下에서는 腎陰과 腎陽이 平衡을 維持하기 때문에 腎氣의 開闔作用도 서로 調和를 이루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小便이 정상적으로 排泄되어진다. ……氣化라고 하는 것은 一定한 熱에너지로써 水液의 變化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 熱에너지의 來源은 腎陽 즉 命門之火이다. 人體 各組織의 水分은 반드시 腎陽에 의해서 蒸發되어진 다음에 쓸모없는 水分이 體外로 배출되기 때문에 ‘腎主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다. 腎主水의 機能이 失調되면 氣化作用과 開闔作用이 원활하지 못하여 臨床上 水液의 流失過多 또는 過少現象이 발생하게 된다. 즉, 陽盛陰虛하면 開多闔少함으로써 糖尿病·尿管症 등과 같은 水液의 流失過多現象이 나타나고, 陰盛陽虛하면 闔多開少함으로써 腎病水腫·尿毒症 및 尿少·無尿 등과 같은 水液의 貯溜現象이 나타난다” 하여 腎陰 腎陽의 多少에 의해 小便量이 或多或少하게 됨을 論하고 있으며, 甄, 王 等の 思想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黃帝內經을 爲始하여 近效方에 이르기까지 時代別 重要書籍을 通하여 三消理論의 形成過程에 對해 살펴 보았는데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黃帝內經에서는 消渴, 消中이라는 名稱外에 腎消라는 名稱은 찾아볼 수 없으나, 金匱要略에서 腎氣丸을 主方으로 하는 消渴을 提示하였고, 그 외에 渴症을 主症으로 하는 疾患의 症狀 및 處方 四種을 提示하였다. 그러나 錄驗方에서는 이들 五種의 消渴病中, 厥陰病消渴과 水液停滯에 의해 나타나는 消渴을 除外한 나머지 三種을 消渴, 消中, 腎消라고 稱하고, 그에 對한 症狀와 治方을 提示하고 있으니 이것이 三消理論의 始作인 것이다.

한편, 小品方에서는 消渴을 石藥에 의한 경우와 熱中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論하고 있는데, 石藥에 의한 경우를 보면 內經에서는 石藥은 脾臟을 損傷시킨다 하였고 小品方에서는 어렸을 때에 石藥을 服用한 것이 長期化되면 人體가 虛한 틈을 타 石熱이 腎中에 結한다 하여 石藥은 脾臟을 損傷시키고 後에 腎臟을 損傷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熱中에 의한 경우 이는 內消라고 하는데 이는 陰虛陽盛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이는 石藥에 의해 나타나는 消利症과 그 症狀가 같으며, 巢之方이 이들을 같은 것으로 다루고 부터 혼동된 것이다.

兩者 모두 陰이 虛하고 體力이 虛耗하여 나타나는 症狀으로 陰을 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張仲景은 이를 觀察하여 腎氣丸을 制方하였을 것이다.

2. 黃帝內經에서는 脾臟이 柔弱하거나 五臟이 柔弱하여 發生한 脾痺, 消痺 등에 의해 消渴, 消中證이 나타난다 하였으며, 小品方, 金匱要略, 古今錄驗方 等에서는 疾病이 長期化되어 體力이 消耗되고 陰虛하여 나타나는 腎消證을 記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 三消는 病의 깊이를 나타내는 尺度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疾病의 狀態에 따라 主方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3. 消渴病이 생기면 小便이 달다고 記錄한 最初의 文獻은 近效方에서이며, 이는 理化學檢査의 基礎라 볼 수 있는데, 臨牀에 있어서 消渴病이 長期化된 然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Urine test 나 Blood test 를 通해 早期의 診斷과 治療를 해야 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毛德西：消渴病中醫防治，北京，中醫古籍出版社，p. 1, 1988.
2. 楊醫亞，中醫學問答，北京，人民衛生出版社，p. 310, 83, 1985.
3. 杜鎬京：東醫醫系內科學，서울，東洋醫學研究院，p. 518, 1986.
4. 申載鏞：糖尿病과 消渴，서울，成輔社，p. 11, 1985.
5. 王琦外：黃帝內經素問今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p. 147, 145, 90, 196, 234, 89, 92, 224, 182, 1979.
6.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中醫大辭典，北京，人民衛生出版社基礎理論分冊，p. 266, 249, 325, 119, 醫史文獻篇，p. 10, 166, 251, 1983.
7. 張景岳：類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上册，p. 365, 342.
8. 張子和：儒門事親，臺灣，旋風出版社，卷三 p. 24, 25, 1978.
9. 武長春：內經消痺病考，香港，中醫雜誌，第30卷，第二期，p. 66, 1990.
10. 郭霽春：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北京，天津科學技術出版社，p. 244, 227, 106, 1981.
11.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臺灣，樂郡出版公司，p. 140, 1977.
12. 王顯明：中醫內科辨證學，北京，人民衛生出版社，p. 238, 248, 1984.
13. 喻 昌：醫門法律，上海，上海科技出版社，p. 212, 1981.
14. 張景岳：景岳全書雜病謨選讀，北京，重慶大學出版社，p. 61, 1988.
15. 劉河間：傷寒三六書 素問病機氣宜保命集，서울，成輔出版社，卷下，p. 83, 1976.
16. 李 杲：東垣十書，서울，慶熙漢醫大蘭室秘藏，卷上，p. 11, 1973.
17. 郭子光外：傷寒論湯證新編，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p. 118~128, p. 118, 165, 1983.
18. 楊何輝：金匱要略注釋，臺灣，正中書局，p. 176, 174, 168, 169, 1986.
19. 南京中醫學院：諸病源候論校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卷上，p. 151, 155, 1988.
20.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杏林出版社，卷下，p. 751, 760, 756, 1976.
21. 王 焘：外台秘要，서울，成輔社，卷上，p. 298, 305, 1975.
22. 許叔微：普濟本事方，上海，上海科學技術出版社，p. 85, 1987.
23. 許 凌：東醫寶鑑，서울，南山堂，p. 508, 1986.
24. 洪元植：精校黃帝內經，서울，東洋醫學研究院，p. 286, 38, 94, 81, 273, 249, 264, 1981.
25. 洪元植：中國醫學史，서울，東洋醫學研究院，p. 114, 1987.
26. 丹波康賴：醫心方，臺灣，新文豐出版公司，卷 II，p. 454, 466, 1976.
27. 金完熙：臟腑辨證論治，서울，成輔社，pp. 313~314, 285, 1988.
28. 宋徽宗命撰：聖濟總錄，서울，驪江出版社，中國醫學大系，pp. 739~747.
29. 陳 言：三因極一病證方論，北京，人民衛生出版社，p. 136, 1983.